

사과와 요구르트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역사상엔 사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역사상의 4대 사과이니, 5대 사과이니 하는 말들이 있는 모양이다. 사과에 얽힌 역사적인 에피소드중 가장 원조는 물론 성서에 나오는 아담의 사과이다. 금단의 열매를 먹다가 조물주에게 들켜어 놀란 아담이, 급히 삼키는 바람에 목에 걸린 열매는 주홍글씨처럼 원조로 남아 자자손손 그 후예인 남자들의 목젓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남자들의 불거진 목젓을 Adam's apple이라고 한다. 두 번째 사과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파리스의 황금의 사과이다.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 중에서, 분쟁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의 사과를 받을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고르게 된 미남 목동 파리스. VENUS라고도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선택으로, 여신에게서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황후이자 세기의 미인 헬레나를 선물 받음으로써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는 황금의 사과가 그것이다.

세 번째 사과는 루시니의 오페라로 유명해진 윌헬름 텔의 사과이다. 오스트리아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스위스의 독립운동의 대명사이다.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위에 사과를 놓고 화살을 쏘라는 오스트리아의 통치관 게슬러의 명령을 받은 윌리엄 텔이 보기 좋게 성공하고 그 화살로 게슬러를 쏘아 죽임으로써 스위스 독립을 앞당겼다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번째 사과는 설명이 더 필요없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관련된 사과이다.

세 형제중 두 형과는 달리 가장 재주가 보잘 것 없던 막내가 유산으로 받은 단 하나의 재산인 마법의 사과를 죽은 공주에게 먹임으로써 사과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지만 막내는 다시 살아난 공주와 결혼하고 왕국을 차지한다는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마법의 사과도 유명한 사과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맥킨토시 컴퓨터로 잘 알려진 Apple사도 IBM에 대응하면서 컴퓨터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작명했다든가?

우리 고분자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보았다. 수년 전에 필자는 일반화학을 가르친 바가 있다. 일반화학 첫 시간에 화학의 일반론과 범위를 강의하면서, 언제나 Chemistry를 Carbon/Hydrogen/Elements/Molecules/Interface/Structure/Thermodynamics/Reaction/Yield로 풀어 강의하면 학생들이 화학을 매우 재미 있어 한다. 화학은 탄소(C)와 수소(H)가 중심이 되어 각종 원자나 원소들(E)이 어우러져 분자들이나 화합물(M)이 된다. 그 구조(S)를 공부하고, 그 분자나 화합물들의 만남으로부터 생긴 계면(I)이나 서로 다른 상들이 어우러지면서 에너지 변환(열역학(T))이 일어나고 반응(R)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지만 화학의 최종 목적은 인간에게 유용한 화학 물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얻어지게 하느냐 하는 수율(Y)에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조금은 과장된 듯한 느낌은 들지만, 필자는 고분자 개론강의를 사과(Apple)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고분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그 중, 고분자가 무정형인가 결정형인가(Amorphous/Crystalline State), 소성과 탄성(Plasticity/Elasticity)은 어떻게 구분되며,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Polymer/Polymerization), 점탄성 성질이나 각종 역학적, 광학적, 전기적 물성 등을 다루면서 선형인가 비선형인가(Linearity/Nonlinearity)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분자과학의 최종 목적은 공학적으로 미래의 첨단기술사회에 걸맞는 유용한 재료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생산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Engineering and Emerging Technologies). 그래서 고분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단의 열매에서 출발했지만, 인류 최후의 소재로서 인류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 Apple 즉 또 다른 사과가 될 것이라고.

각설하고, 이번 호 컬터에서는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과에 얽힌 에피소드를 한 번 적어볼까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강단에 계신 교수님들께나, 현재의 신세대 학생들, 혹은 이미 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연구나 공부, 또는 하고 계신 업무에서 잠시 틈내어 쉬시면서, 생각할 자리를 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84년 가을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강단에 처음 섰을 때가 82년 9월. 4학년 첫 수업을 들어 갔을 때 학생들 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는 물론 이미 결혼한 학생도 있었고, 미혼이었던 나의 신부감이 될만한 말 같은 처녀들도 있어, 학생들이지만, 한 학기 내내 높임말을 쓰면서 강의에 무척 신경을 쓰기도 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 학기 내내 조심스런 강의를 하면서, 새 봄을 맞아 내가 마음대로 반말을 써도 좋을 새내기들이 입학하자 얼마나 내심 좋았던지 지금까지 교단을 지키면서 이때 학생들 만큼 정들었던 학생들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 하나하나와도 무척이나 친했었다. 정치적 자유가 억압받던 5공 시절이라 학생지도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학생들과 1:1 대화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강의준비도 열심히 했고, 학생들도 잘 따라주었다. 당시 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내가 맡았던 학생들은 용케도 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수업에도 착실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해서 교단에 선지 3년째 되던 84년 가을, 우리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 학과의 학생들 또한 무척이나 정이 들었던 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학과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성향을 띤 학생들이 많은 까닭에 시간마다 결석하는 학생들이 적지않게 눈에 띄었다. 시간마다 훈계를 하고 수업 빠지는 것에 대해 학점을 무기로 협박도 서슴치 않았지만 전원출석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때, 이 학과의 대표를 맡은 학생이 바로 H군이었는데, 통솔력도 있고 친화력도 꽤 뛰어난 학생으로 H군은 학과대표로서 늘 동료학생들의 결석에 대해 미안해 했다. H군 자신은 한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시간표를 보고 강의실에 들어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학과 학생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내가 강의실을 잘못 들어 왔나 싶어 교수수첩을 보고 확인했지만 강의실은 틀림이 없었다. 다른 강의실에도 평소 보다 굉장히 적은 학생들 만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다. 약 5분간 내가 들어 선 강의실을 나 혼자 지키다가 이웃 강의실에 앉아 있던 학생들에게 오늘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없느냐고 물으니가 학생회 전체 차원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수업에 불참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고, 자신들은 도서관 대신 강의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실로 내려왔다.

이틀이 지나고 다시 그 수업시간이 되어 그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이게 웬…… 교탁 위엔 사과 1개와 요구르트 1병 만이 놓여 있고 그 학과대표였던 H군만이 강의실을 지키고 있는게 아닌가. 그러면서 학생들의 뜻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는 나가 버리는게 아닌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인가. 사과와 요구르트 하나씩을 들고 연구실로 내려오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동맹휴업이 주말까지 더 연장됨에 따라 H군은 내게 수업을 받고 싶으면서도 전체학생들의 결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학과대표로서의 책임으로, 정중한 사과와 함께 1주일의 수업거부에 대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사과와 요구르트라고 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사과와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으면서 H군의 기발한 재치와 스승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면서 참 멋진 학생이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 하였다.

이 일로 해서 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H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깃들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 H군은 자기 출신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내 제자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굴지의 화학회사의 중견관리인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H군과의 인연은 지금도 끈끈히 이어가고 있으며 나의 교수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민주화를 바라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에 동료로서, 학생들의 요구에 답하고, 교수에게도 수업거부의 요구를 정중히 전달하면서도, 각듯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결코 비싸지 않은 뇌물(?)로 교수의 마음을 누그러 뜨리고자 한 H군의 깊은 속뜻과 기지와 재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기들이 낸 등록금 만큼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철저히 챙기며 조금의 빈 틈도 허락하지 않는 요즈음의 신세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동료들 간의 선의의 경쟁 대신 나만의 정보 독점으로 홀로 이기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요즈음 학생들을 보면서, H군이 교탁 위에 놓았던 사과와 요구르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을 내게 심어 주었다. 그런 만큼, 연륜이 쌓여갈수록 또 다른 H군을 기대하고 있는 나 자신의 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길 빌어 본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져도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다 보면 제2의 H군, 제3의 H군과 같은 참된 제자를 또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리라 기대하면서, 오늘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